

2020년 6월 30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방역과 과 장 이제용(044-201-2531), 사무관 곽상익(2539) / 제공일: 6월 29일(총 3매)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상반기 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결과

- 항체 양성률이 소 97.8%, 염소 88.6%로 높은 수준 유지 -

《 주 요 내 용 》

□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전국의 소·염소 사육 농가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하였으며,

* 114천 농가 3,840천 두(소 100천 농가 3,285천 두, 염소 14천 농가 555천 두)

○ 백신 항체의 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소 97.8%, 염소 88.6%로 소와 염소 모두에서 높은 수준의 항체 양성률을 보임

* 소 : 2019년 평균 항체 양성률 97.8% (한·육우 97.8 / 젃소 97.7)
→ 2020년 상반기 97.8% (한·육우 97.6 / 젃소 98.7)

** 염소 : 2019년 평균 항체 양성률 84.8% → 2020년 상반기 88.6%

□ 앞으로도 소·돼지 등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에 대한 교육·홍보, 항체 보유상황 상시 조사, 취약지역 점검 강화 등을 통해 항체 양성률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겠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전국의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을 일제히 접종하였으며, 예방접종을 마친 농가에 대해 1달이 지난 시점에 구제역백신 항체의 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소와 염소 모두에서 항체 양성률이 높은 수준(소 97.8%, 염소 88.6%)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특히, 염소에서 지난해 평균 항체 양성률과 비교하여 3.8% 상승하였으며, 소의 경우는 작년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나, 젖소에서 1.0% 상승하였다.

* 소 : 2019년 평균 항체 양성률 97.8% (한·육우 97.8 / 젖소 97.7)
→ 2020년 상반기 97.8% (한·육우 97.6 / 젖소 98.7)

** 염소 : 2019년 평균 항체 양성률 84.8% → 2020년 상반기 88.6%

- ‘일제접종’은 2017년 9월부터 가축사육 농가에서 소·염소에 대해 예방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하도록 특정 시기(상·하반기)를 정해 연 2회로 정례화하여 전국적으로 일제히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 올해 상반기(2020.4.1.~5.28.)에는 전국의 소·염소 사육 농가 11만 4천여 호의 384만 마리에 대해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다.

* 접종실적 : 소 100,082호 3,285,450마리, 염소 13,953호 555,429마리

※ 돼지 사육 농가는 농장별 여건에 맞는 자체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 이번 일제접종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농가에서 자체 접종 시기에 맞춰 연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음

* 돼지 평균 항체 양성률 : (‘18) 80.7% → (‘19) 75.8% → (‘20.5월) 86.4%

- 농식품부는 모든 농가가 예방접종에 소홀함이 없이 제대로 실행하고, 그 결과로 항체 양성률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국의 소·돼지 등 농장과 도축장에서 항체 보유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 특히, 작년부터 취약분야를 찾아내어 혈청검사를 강화*하고, 예방접종에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결과 돼지와 염소에서도 항체 양성률이 높아지고 있다.

* 젖소농장(5,533호) 검사, 겨울철 도축장 출하 소·돼지 검사(9,409호),
소 전업 규모(50마리 이상) 사육농장 일제검사(21,000호) 등

** 2019년 과태료 부과 : 402건(한육우 9, 젖소 3, 돼지 387, 염소 3)

□ 농식품부 이제용 구제역방역과장은 “앞으로도 방역에 취약한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서 개선해나가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 더욱 힘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소·돼지 등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올바른 예방접종에 대한 교육·홍보, 항체 보유상황 상시 조사, 취약지역 점검 강화 등을 통해 구제역백신 항체 양성률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 “국내에서 구제역이 ‘19년 2월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농가에서 예방접종을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농장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